

[사회]

인도 한가운데... “전봇대가 너무해”

이명박 대통령의 영암 대불공단 '전봇대' 발언 이후 광주시 각 구청에 전봇대를 옮겨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적지않게 접수되고 있다. 올 들어 3개월동안 전봇대를 옮겨달라며 광주시 각 구청에 민원을 낸 경우는 모두 13건.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전봇대 설치에 반감을 토로하며 이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광주 곳곳 불편... “ 옮겨달라 ” 민원 올들어 13건이나

1일 오후 광주시 남구 서동 사거리 부근 도로. 차량 두 대가 영커 정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도로가에 설치된 전봇대로 인해 차량 두 대가 한꺼번에 빠져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전봇대로 인해 접촉사고도 빈번하고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견디다 못한 반연환(52)씨 등 주민 20명은 지난달 “도로가에 설치된 전봇대 때문에 차량 통행은 물론 시민들도 걸터 다니기도 힘들다”며 “전봇대 이전” 집 단민원을 제기했다.

반씨는 “사고 위험이 있어 수년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쉽사리 제기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대통령 발언 이후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민원을 냈다”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 백운동 벽산아파트 정문 부근 인도. 인도 폭이 1m50cm에 불과해 성인 두 명이 지나가기에 좁은 곳이다. 이렇게 좁은 인도 한 가운데에 높이 10여m·폭 50cm의 전봇대가 세워져 있어 주민들은 어깨를 부딪치며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13일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앞 인도에 있는 전봇대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도로 한가운데 전봇대를 설치한 것은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이전을 요구했다.

전봇대 이전의 경우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과 한국전력이 함께 현지 실사를 거쳐 이전 여부를 판단한다. 통행불편 등이 인정되면 한국전력이 이전비를 부담하며 전봇대 한 개의 이전·설치 비용은 종류별로 100만원~1천만원 가량, 공사 기간은 1주~3주일이 소요된다.

시민들은 통행불편은 물론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애당초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는 곳에 전봇대 설치를 강행해 다시 이전할 경우 비용이 두 배로 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정확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전봇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의 전봇대 이전 민원을 제기한 김모(38)씨는 “누가 봐도 사고 위험이 큰 위치에 전봇대를 설치한 공무원들의 현장 무시 행정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전남지사 관계자는 “전봇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종류에 따라 일부 지역을 일시 단전시켜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지만 민원이 제기된 곳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남구 백운동 벽산아파트 정문 앞 비좁은 인도 한복판에 세워진 전봇대. 행인들이 전봇대를 피해 겨우 인도를 빠져나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동명이인 잘못 입금된 돈에 눈멀어

2천만원 빼돌린 40대 주부 징역형

금융기관 직원의 실수로 인해 자신의 통장에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예금 수천만원이 들어있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40대 주부가 이를 빼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준섭 관사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여·4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주부 한씨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것은 한 금융기관 여직원의 실수로 시작됐다. 한씨는 지난 2006년 10월 무렵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러 갔다가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통장에 예금액이 2천만원이나 된다”는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된다.

지난 1993년 잠깐 거래한 뒤 사실상 휴면계좌나 다름없던 자신의 통장에 거액이 입금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한씨는 새마을금

고에 문의한 끝에 돈의 출처에 대해 알게 됐다.

하지만, 한씨는 남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006년 10월 27일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거래를 해지해 계좌에 있던 예탁금 2천만원과 이자 9만여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돈은 한씨가 통장을 개설한 지 5년 뒤인 지난 1998년, 한씨와 동명이인의 딸(37)을 둔 A씨가 정기예탁금으로 넣어둔 것. 두 한씨의 이름이 같고, 나이도 비슷한 점만 믿고 계좌를 오인해 개설해 준 금고 직원의 실수로 이후 예탁금은 엉뚱하게 한씨의 예탁금으로 둔갑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4월 만기일에 맞춰 A씨가 이자를 찾으러 갔다가 들켰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금고 측은 한씨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다 쓰고 없다”는 말에 결국 형사 고소에 이르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국산 등 보이차서 농약 검출

최근 향이 뛰어나고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보이차’에서 농약성분과 발암성 곰팡이 독소가 검출됐다. 그러나 검출된 농약성분 7개 가운데 국내 기준치가 마련된 것은 2종에 불과해 관리 기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식(통합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발효차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보이차(Pur-erh

tea)를 조사 분석한 결과 7종의 잔류 농약과 발암성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이 검출됐다.

연구팀은 우선 국내 유통중인 국산(3건), 중국산(34건), 베트남산(3건) 보이차 40종에 대해 곰팡이 독소, 농약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제품 4건에서 피메스린(3건)과 클로피리포스(1건)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피메스린은 차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살충제로 현재로서는 국내 허용기준치조차 없는 상태다. /연희뉴스

광주 도심 승용차 날치기 잇따라

광주 도심에서 하루 밤 사이 승용차 날치기 사건 두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밤 11시께 광주시 동구 소태동 모 초등학교 앞길에서 흰색 세도 승용차를 탄 남성 2명이 한모(여·51)씨의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핸드백을 낚아채 달아났다. 이날 밤 10시30분께에는 서구 농

성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흰색 레조 승용차를 탄 남성 2명이 정모(여·49)씨의 예금통장이 든 손가방을 빼앗아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이 같은 점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구름 낀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었으며 구름이 많이 끼겠다.

4월 2일
(음 2월 26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음	6~14℃
주요도시	구름 많음	7~12℃
대전	구름 많음	7~14℃
대구	구름 많음	6~13℃
부산	구름 많음	4~15℃
서울	구름 많음	5~14℃
인천	구름 많음	3~14℃
안동	구름 많음	4~15℃
울산	구름 많음	4~15℃
충청	구름 많음	4~15℃
경남	구름 많음	4~12℃
전남	구름 많음	6~14℃
전북	구름 많음	5~13℃
제주	오후 한때 비	3~13℃
북한	구름 많음	7~10℃

서해남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0.5~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0.5~1.5m
남해동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11:31 썰물 < 04:26
목포 밀물 < 23:41 썰물 < 17:18
여수 밀물 < 06:53 썰물 < 00:08
여수 밀물 < 18:56 썰물 < 13:03

▲해돋이 06:18 ▲해질 18:55 ▲달돋이 03:55 ▲달질 14:4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날씨						
최저/최고	6/15	4/20	5/21	7/21	7/20	6/20

광주 지난달 평균 최저기온 3.6도 100년전보다 5도 이상 높아

지난 3월 광주지역 평균 최저기온이 3.6도를 기록해 2007년에 이어 지난 1908년 기상관측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광주지역의 3월 최저기온은 3.6도였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평균 최저기온은 3.6도로 평년기온(1.6도)보다 2도 이상 높았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이 같은 온도는 100여년전인 지난 1910년대에 비해 5도

이상 올라간 것으로 온실가스의 증가 등 기후변화가 이상 기온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기상청이 1973년 이후 올해까지 전국 60개 지점의 기상관측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전국 평균기온은 7.1도로 2002년(8도), 1998년(7.4도), 1990년(7.2도)에 이어 4번째로 높았으며, 평균 최고기온은 13.3도로 2002년(14.4도), 1998년(13.6도)에 이어 역대 3위였다. /김철성기자 kps@

광주~전남도청사 금호고속 노선 개통 6월까지 특별기간 설정

금호고속은 광주시와 전남도청을 오가는 통근버스 운행이 지난달 31일로 중단됨에 따라 1일부터 광주에서 무안군 남악리 전남도청사를 연결하는 노선을 개통했다.

신설 5개 노선은 영주동(오전 7시20분)·운암동(6시49분)·풍암동(6시40분)·문흥동(6시39분)·월산동(6시58분)에서 각각 출발하는 코스이며, 도청발 광주행 시차는 오후 6시 40분으로 단 한차례 운행한다. 이들 노선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행되며,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채희종기자 chae@

“마약 투약자 자수하세요” 6월까지 특별기간 설정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대마·향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본드와 부탄가스 등의 환각물질 흡입자 등이다. 이 기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단순 투약자의 경우 검찰과 협조해 불입건 또는 불구속 등 최대한 형사처벌을 가법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

교사임용시험? **곽내영교육학**

교육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www.naeyoung.com

529-009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사수명 361-8111, 복구명 529-8111

개강 4월 1일 합격

국비무료

새초 행정고시학원

공인중개사 = 합격률 전국 1위 =

오전반 야간반

4월 첫진도 시작반

수강료 50% 환급과정

전남고시학원

236-2467~8, 080-0236-2468